

FUTURE RE JEU

제주관광
미래비전
워크숍

STRATEGY WORKSHOP FOR THE FUTURE OF JEJU TOURISM



제주관광 질적 성장지표
관리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제18차 워크숍

2018년 6월 21일 목 16:00

제주웰컴센터 3F 대회의실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제주, 질적 성장을 말하다

- 제주관광 질적 성장지표 관리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

- ❖ 일 시 :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오후 4:00 ~ 6:00
- ❖ 장 소 : 제주웰컴센터 3층 대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 ❖ 주 최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프로그램

4:00~4:10 (10분)	인사말	제주관광공사 사장
4:10~4:20 (10분)	사회자 및 토론자 소개	연구조사센터 센터장

주제 I.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관광 지표의 관리 (제주연구원)

4:20~4:40 (20분)	주제발표 I	신동일 연구위원
-----------------	--------	----------

주제 II. 관광 정책지표의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40~5:00 (20분)	주제발표 II	김희수 연구위원
-----------------	---------	----------

토론회

5:00~6:00 (60분)	종합토론	제주관광공사 본부장
6:00~8:00 (120분)	리셉션(참가자 네트워킹)	

문의 :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 (064-740-6099, bhs5694@jto.or.kr)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관광 지표의 관리

제주연구원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신 동 일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관광 지표의 관리



제주연구원 관광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신 동 일

목 차

I

제주관광 환경변화

II

관광(성과)지표 관리 방안





관광환경의 변화

●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에

- **제주는 2016년을 관광산업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공론화**



질적 성장 지표의 관리시작

지표	목표	중점 과제
체류일수	증가	지역연계 융복합 관광, 관광개발사업 위기 관리, 환경친화 행태
1인당 평균 지출비용	증가	쇼핑/관광상품 개발, 관광품질 고급화
관광객 만족도	유지 또는 증가	불만족요인 관리, 관광인력 양성, 환대서비스 제고, 자금운용 효율화
여행 행태	개별관광 증가	관광정보 안내 개선, 교통체계 개선
마케팅 다변화지수	일본시장 회복 해외시장 다변화 온라인홍보 확대	마케팅 전략 변화, 조사분석 체계화





기존 지표는 시험적 성격

● 기존 지표의 한계와 보완 필요성

- **관광산업적 측면의 지표**
 - 기존 제주관광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표
 - 패러다임의 전환으로는 한계 노출




타 지역의 관광(성과)지표

● OECD의 관광경쟁력평가지표



- 핵심지표 + 보완지표, 향후 개발예정지표 등
- 총 9개 분야 20여가지 중분류 항목으로 구성

경제와 관광서비스 질 부문에 무게 중심






핵심지표	
관광산업의 업적과 파급효과	·관광GDP ·관광객1인당 인바운드수입 ·총숙박수 ·관광서비스 수출액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능력	·관광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구매력평가에 의한 관광의 가격경쟁력 ·비자유건
관광지로서의 매력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 ·문화·창작활동, 이벤트, 시설 ·관광객만족도
정부대응과 경제기회	·정부의 관광행동계획(효율성 포함)
보완지표	
관광산업의 업적과 파급효과	·관광시장의 다양성과 성장성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능력	·관광산업 종사자의 속성 (연령, 교육수준, 채용형태) ·관광에 관한 소비자 물가지수 ·항공의 편리성(타 교통과의 연계)
관광지로서의 매력	·살기좋은 지표(관광 관련)


타 지역의 관광(성과)지표



오키나와의 관광성과지표

- **관광객, 관광산업(경제), 주민, 관광자원(환경) + 관리**
- **총 5개 분야 40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

경제 부문에 무게 중심






분류	오키나와	
	지표명	
경제	수용력	항공여객제공좌석수
		숙박시설(수용인원)
		2차교통(렌터카, 전세버스)
	관광수입	관광수입
		소비단가
		체재일수
		숙박자수(인박수)
		객수(MICE참가자)
		객수(관광시설입장수)
		계절변동
	경제	지역경제파급효과
	고용	종사자수(숙박업, 음식서비스업)






분류	오키나와	
	지표명	
관광객	인수	입도관광객수
		외국인관광객수
	환대	무장애관광대응
		통역안내사등록자수
		관광택시자격증 소지자수
		관광만족도(내국인)
	의식	관광만족도(외국인)
		재방문율







분류	오키나와	
	지표명	
주민	생활	주민소득
		체증(주간평균여행속도)
		관광객비율(정주민구환산)
		주민여행의 실시도
	의식	거주편의성
		관광시책 중요도 인식
관리	관리	현 관광예산
		시정촌 관광예산
		시정촌 관광계획의 유무
		시정촌 관광협회의 유무






분류	오키나와	
	지표명	
환경	지구환경	최종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이산화탄소)
		환경인증사업자수
	자연자원	해수욕장 수질
		생태관광 인증현황
		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정현황
		경관(경관행정단체)
	문화자원	지정 문화재 수
		세계유산 방문자수
		문화스포츠 이벤트 참가자 수






관광성과지표(관광객지표 총괄시트)						
	개별지표	최신통계	측정 년도	연도별 변화 (과거 10년)		
				전년 대비	과거 3년	과거 10년
인수	입도관광객수	717만인	2014	↗	↗	↗
	외국인관광객수	99만인	2014	↗	↗	↗
환대	무장애관광대응	31개소	2014	↗	↗	↗
	통역안내사등록자수	421인	2014	↗	↗	↗
	관광택시자격증 소지자수	393인	2014	→	→	-
의식	전체 관광만족도(내국인)	51.2%	2012	↘	→	-
	전체 관광만족도(외국인)	78.5%	2014	→	↗	-
	재방문율	74.4%	2014	→	→	↗




관광성과지표(환경지표 총괄시트)						
	개별지표	최신통계	측정 년도	연도별 변화 (과거 10년)		
				전년 대비	과거 3년	과거 10년
지구환경	최종 에너지소비량	118,934TJ	2013	→	→	→
	온실가스배출량 (이산화탄소)	1,277만t	2014	→	→	→
	환경인증사업자수	53개		↘	↘	↗
자연환경	해수욕장 수질	32개소	2014	→	↗	↗
	생태관광 인증상황	신규 지표				
	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정현황	신규 지표				
	경관(경관행정단체)	신규 지표				
문화자원	세계유산 방문자수	297만인	2012	→	→	↗
	지정문화재 수	신규 지표				
	문화스포츠 이벤트 참가자 수	신규 지표				





제주의 지표 보완 방향(안)



제주의 지표 15 + 5(안)



분류	제주관광 질적 성장 성과지표	비고
1.경제	① 항공여객제공좌석수	향후 5년 이내 보완지표 ① 연간 숙박자수 ② 종사자수(도민비율) ③ 무장애관광지수 ④ 환경인증사업 ⑤ 관광진흥기금
	② 관광수입	
	③ 소비단가(1인당 지출비용)	
	④ 체재일수(체재관광객 비율 포함)	
	⑤ 지역경제파급효과	
2.관광객	⑥ 관광객 수(내·외국인)	
	⑦ 관광시장 다양성 지수	
	⑧ 관광만족도(내·외국인)	
	⑨ 재방문율	
3.주민	⑩ 주민소득	
	⑪ 거주편의성(정주만족도)	
	⑫ 관광시책 중요도 인식	
4.환경	⑬ 생태관광 인증현황	
	⑭ 문화 관련 사업(이벤트)	
5.관리	⑮ 도 관광예산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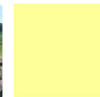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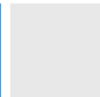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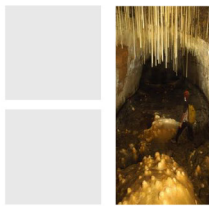
제주의 지표 15 + 5(안)

	관광지표 평가기준				
용어	대폭 하락(감소)	소폭 하락(감소)	현상유지 (정체)	소폭 상승(증가)	대폭 상승(증가)
표시	↓	↘	→	↗	↑
기준	기준대비 -6%p 이상	기준대비 -5%p 이내	기준대비 -1~1%p	기준대비 5%p 이내	기준대비 6%p 이상

- 기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신동일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관광 정책지표의 개발

한국문화관광연수원

김 희 수

관광 정책지표의 개발

2018.6.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목 차

1. 지표 설정 현황

- 관광정책 목표
- 성과 지표

2. 개선 방안

- 목표 설정
- 지표 개발
- 관광통계 개선
- 제주관광 질적 성장 성과지표 검토

1. 지표 설정현황

관광정책의 목표

- 관광정책 목표는 매년 유사하게 설정되고 있고, 몇 개의 계량지표만을 이용하며 하위사업의 경우에는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있음
-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음. 일부 국가의 경우 관광위성계정(TSA)을 바탕으로 몇 개의 계량지표가 추가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관광객 흐름, 수입 등을 바탕으로 설정

성과지표

- 세부사업별로 성과지표를 하나 이상은 설정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세부사업별로는 성과지표가 없는 경우가 있음
- 현재의 성과지표를 5개년 정도로 연장해서 살펴보면 성과지표가 단절되는 사업이 많아지는 만큼 안정적인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사업성과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진한 까닭은 우선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
 -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현상

3

관광정책 지표 설정의 변화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목표 설정

비전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융성하는 대한민국

목표	2012년 기준	2018년 목표
외래관광객수	1,114만 명	2,000만 명
관광수입	134억 불	255억 불
국민국내관광 참여일수	8.4일	11일
국민 국내관광 소비액	24조 원	32조 원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	85만 개	100만 개

제5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의 목표 설정

국민 국내관광객 : 4억 3천만 일

외래 관광객 : 2,500만 명

관광 종사자수 : 36만 명

- 국민들이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광객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도록 매력적인 콘텐츠와 편의 제공
- * 1인당 국내 여행일수 ('16) 9.4일 → ('22) 12일
- * 재방문 외래관광객 수 ('16) 665만 명 → ('22) 1,500만 명

4

관광정책 지표 설정의 변화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12-2021)의 목표 설정

기본계획상 계획 지표(2012 → 2021)

국민 국내관광 총량
4.9→7억 명

외래 관광객수
1→2.1천만 명

관광개발 면적
5.3 → 6.6억 m²

국민 국내관광 총량
6.4→8.6천억 원

관광진흥 5개년 계획상 계획지표

구분	2001	2012	2018
관광산업경쟁력(WEF)	—	25위	21위
브랜드(Anholt)	—	27위/50개 국	25위/50개 국
외래관광객(만 명)	616	1,114	2,000
관광수입(억 불)	63.7	134	255
국민관광 참여일수	8.7	8.4	11
국민 국내관광 소비액(조 원)	12.5	24	32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만 개)	—	85	100

5

관광정책 지표 설정의 변화[관광국 연간 업무계획]

2015년도

비전

관광으로 행복한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목표

외래 관광객 수 (‘14) 1400만 명⇒(‘15) 1550만 명	외래객 지방 방문율 (‘14) 36%⇒(‘15) 41%	관광 국가경쟁력 (‘13) 25위⇒(‘15) 20위
관광 수입 (‘14) 175억 달러⇒(‘15) 200억 달러	국내관광 지출규모 (‘13) 23조 원⇒(‘15) 27조 원	관광 투자액(FDI) (‘15) 10억 불 유치

2017년도

비전

관광으로 행복한 국민, 활력있는 경제

목표

국내 관광 지출 (‘15) 25조 원⇒(‘17) 28조 원	국내 여행 횟수 (‘15) 2.4억 회⇒(‘17) 2.9억 회	연차휴가 소진율 (‘14) 57.8%⇒(‘17) 60%
-------------------------------------	---------------------------------------	-----------------------------------

*일본(‘14) 47.6%⇒(‘20)70% 목표

6

2. 개선방안

목표 설정

향후 목표설정의 개선을 위해 관광정책 목표를 상위목표와 하위 목표로 구분해서 체계화하는 접근 필요

-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에 대해서도 계량목표를 세우려는 시도가 필요

외래관광객의 지방분산이 목적이라면, “특정지역에서의 외래관광객 숙박일수” 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 외래관광객의 다변화가 목적이라면 “입국국가 집중률(concentration ratio) CR₅, CR₁₀” 등을 바탕으로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우리나라의 관광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세계 인바운드에서의 우리나라 시장의 비중” 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임

- 해외관광 마케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목표시장의 관광객수 증가율”, “목표 연령층의 관광객수 증가율” 등을 목표로 설정 가능

투입요소 위주의 절대평가 중심에서 경쟁적 상황에서의 상대평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

- 관광정책 목표가 외래관광객수, 관광수입 등 절대적인 성과수치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세나 비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관광객 증가율, 관광수입 증가율과, 관광산업 성장률, 관광산업 GDP 비중 등 비율 지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관광산업 정책의 효과는 주로 관광사업자의 성장을 통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투자, 수입, 비용, 이익, 고용, 임금, 부도를 등과 같은 기업차원의 경영성과, 재무제표를 활용하여 하위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음

- 산업성장 관점에서 관광숙박시설, 관광 대기업수, 임금상승률, 관광호텔평균요금 등을 하위 세부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음

7

2. 개선방안

지표 개발

정책지표 개발은 관광경쟁력의 측정과 관련하여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경쟁력지수, 유럽관광지표시스템(European Tourism Indicator System) 등의 측정항목 활용 가능

- 정책지표는 우리나라 수치만 파악하는 것으로는 불충분, 외국 지표와 비교해서 경쟁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중요

기존통계 산출항목의 조합에 의해서도 새로운 복합지표(composite indicator)를 생산할 수 있음

- 지표 생산을 늘려주면서도 하나의 지표를 통해 여러 가지 현상을 동시에 측정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부족한 관광통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음

관광경쟁력은관광경쟁력지수(수출경쟁력) 산식에 의해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의 산식은 국내 관광수입, 관광지출 수치와 세계관광기구(WTO)의 통계를 대입함으로써 산출 가능

$$RXAi = \frac{\text{한국서비스}_i \text{의수출} / \text{한국전체수출}}{\text{세계서비스}_i \text{의수출} / \text{세계전체수출}}$$

$$RMAi = \frac{\text{한국서비스}_i \text{의수입} / \text{한국전체수입}}{\text{세계서비스}_i \text{의수입} / \text{세계전체수입}}$$

인바운드의 실적을 $\frac{\text{입국자수}}{\text{입국자수} + \text{출국자수}}$ 와 같이 측정해 보는 것도 발상 가능

- 단순히 입국자수만으로 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출국자수와 연관 지어 입국자수를 평가하려는 취지
- 같은 관점에서 관광수입의 경우에도 관광지출과 관련 지어서 $\frac{\text{관광수입}}{\text{관광수입} + \text{관광지출}}$ 지표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성과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8

2. 개선방안

관광통계 개선

관광통계 생산 항목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 생산주기의 단축이 필요

관광통계가 타부처에서 생산되는 사항이 많아서 타부처와의 연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법무부, 한국은행 등과의 협력에 의해 통계를 얻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타부처의 통계에 관광통계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대부분 표준산업분류에 맞춰 관련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므로 기존 통계를 보다 세부업종까지 얻을 수 있도록 협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통계, 크루즈 입항통계, 고용노동부의 고용통계 등

한국고용정보원고용보험통계 중 관광산업 고용현황 자료를 받아 지식정보시스템 등록하는 체계 구축 필요

국가별 여행수지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생산주기를 단축하면 보다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어 협의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에서 음식·숙박, 문화·오락 등의 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 협의 필요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에 관광 참여자수, 관광활동 유형, 방문 관광지 등 항목 추가 방안 협의 필요

NICE평가정보 kisline 데이터에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추적하여 전산업에 대해 표준산업분류별 경영실적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므로 관광산업과 관련된 자료의 활용 필요

호텔, 여행사, 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사업자를 통계생산 지점으로 지정하여 주요 실적정보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유용

9

2. 개선방안

제주관광 질적 성장 성과지표 검토

‘관광수입’은 산술하는데 시차 소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분석자별로 달라서 성과지표로서의 객관성에 의문

‘관광시장 다양성 지수’의 구체적 의미?

‘관광정책 중요도 인식’은 달성해야 될 목표인가?

‘관광진흥기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측정하려는 것인지?

1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발표 I.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

지난 민선 6기 때, 2016년 제주관광 질적 성장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시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내·외 관광 이해관계자들 간 많은 논의와 심도있는 고민을 통해 정책적인 관리지표가 개발되었고,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주 관광 질적 성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지표에 대한 약점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초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여 오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질적 성장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함에 있어 논의에 중심에 있었던 사항은 성장위주의 많은 지표를 관리하는 것보다 정책적, 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재방문율 비율’, ‘개별여행 비율’, ‘1인당 평균 지출비용’ 등 5대 지표를 중심으로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시동이 걸렸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지표에 대한 개발 및 보완과 관련한 논의는 각 계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진행되었으나, 그 균형점을 쉽사리 도출하지 못하였고 그 연장선으로 제주연구원에서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연구를 추진했습니다.

본 연구는 OECD와 오키나와 실질적인 관광정책 지표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진행했고 구체적으로는 첫째, OECD 지표는 정성적인 부분에 가까우며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한계로 체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적 관점의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우리 제주사회가 고민하는 정책방향과는 다소 흡결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둘째, 오키나와에서는 실제 관광정책 성과를 판단하기 위해, 관광객, 산업, 주민, 자원(환경), 관리 분야 등 5개 분야 40가지 세부지표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경제적 측면의 무게가 실리는 현상은 여느 지표들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고무적인 부분은 아마도 제주에 비해 상당히 다양화된 지표로 관리하고, 수요자 관점에 편향된 나머지 고려하고 있지 못했던, 그리고 현 제주사회의 목소리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분야가 고려되고 있었던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잡지각수준을 고려한 ‘체증’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관리파트에서는 관광관련 예산 투입과 산출구조를 살펴보고 시정촌별 관광객 유무에 따른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소요의 효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경파트에서는 가치판단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 준용되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성이 적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관리 프로세스까지 살펴보지는 못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한계를 남겨둌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하였는데, 본 연구의 취지는 제주관광 정책지표를 확정하는 것이 아닌, 차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시이자, 선별적인 적용방안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지표가 관리된다면, 아마도 연도별 변화에 대한 동태과약을 위해 비교분석으로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주의 정책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 방향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나, 사건으로는 성과지향적, 정량적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지향해야 할 것이라 판단합니다. 관광만을 위한 관광지표로서 관리되는 것은 낭비적 요소가 크고 관리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관광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와 부합하는 지표개발이 관건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주제발표 II.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희수 연구위원]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유관기관을 다니고 많은 회의석상에 참가해왔으나, 지표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사례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에 대한 지표설정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오늘은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표개발과 그 방향성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표와 목표는 동일선상에서 해석해야 적절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즉, 지표를

바탕으로 목표를 설정하며, 이는 서로 상쇄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지표는 관리차원에서 계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특히, 관광정책 목표는 메인 목표만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표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목표와 사업단위의 목적부합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흠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관리지표는 성과관리체계에 따르는 시대 트렌드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며, 대다수의 지표가 계량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기초 통계자료에 의존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다루는 통계자료는 시의성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여 현재의 현상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개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업성과 및 각각의 입장 차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변경함으로써 일관성이 상실되며, 유효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과지표는 사업관리를 위한 것이고, 관리지표는 단기적인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표는 성과의 측정과 관리가 주요 맹점이므로 효율적인 판단근거가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근거로 적용하는 관광부문의 통계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를 비롯, 중앙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규통계를 발굴 혹은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으나, 통계개발이라는 부문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아마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부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연구결과를 준용한 논증 중심으로 말씀드렸다면,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중앙정부의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서는 해당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혹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나, 지표자체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관광산업 일자리 창출’입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모호한데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계량적 수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듯 수치에 매몰된 지표관리가 문제가 되고 목표관리의 피드백 작용요소도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개발 기본계획’에서도 목표설정을 위한 접근방법은 유사하나, 세계경제포럼(WEF)의 경쟁력 지수나 국가 브랜드 평가에 통용되는 아놀트 지수를 준용, 지표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증체계 혹은 단순 차용에 지나지 않는지는 더 깊이 살펴봐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에서는 외래 관광객 혹은 이로 인한 경제적 유입, 투자액 등 경제적 파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표에 대한 검증체계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국민, 국내관광으로 초점이 전환되었으며, 지표 또한 단순화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자료는 ‘국민여행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산정되나 통계생산에 대한 시의성 문제로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를 아직도 안고 있습니다.

제주 역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에서 어떻게 목표를 풍부하게 설정하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보다 목표설정 단계부터 정책목적과 부합할 수 있도록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래관광객 다변화, 관광객 편중해소, 즉 공급의 분산이 목적이라면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률을 파악함으로써 지표관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전체시장에서 관광시장에 대한 비중을 판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상대적 비율지표가 절대

적 수치에 매몰되는 것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 지표 중심으로 투입대비 산출인 그 ‘효용성’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는 세계경제포럼(WEF) 등의 관광경쟁력 지수 등을 차용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기존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복합지표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경쟁력을 판단하기 위해 수출산업지수를 차용하여 파악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차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관광통계에 대한 생산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의성이 떨어지고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계자료는 업무관리를 위한 자료로서는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초 자료를 활용하여 지표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할 수 있으나, 기존 자료를 가공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지표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의문입니다. 이상 오늘 저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토론내용 : 좌장, 제주관광공사 이재홍 본부장]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발제를 수락해주신 두 연구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오늘 자리해주신 패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게 된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우리 제주가 고민하고,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 ‘제주관광 질적성장지표 관리 내실화’를 주제로 토론회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표관리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은 제주가 처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희수 연구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지표가 단순히 지표가 아닌 성과에 대한 관리체계, 혹은 계량적 지표로서 관리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기초 통계 개발 등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도내 각 계에서 자리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해주신 것과 같이, 제주관광에 대한 이해와 고민을 같이 하시기에 각 분야별 기존지표를 검토하고 어떤 개선과제가, 또 관광분야에 대한 사회적, 총체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공유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금일 토론 자리는 패널분들의 자유로운 토론자리가 되었으면 하니, 자유롭게 발언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양성우 국장]

저 또한, 제주연구원 신동일 연구위원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김희수 연구위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전에 토론회 관련 자료를 접하고 지난 자료를 찾아보니 2014년도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그 시절에는 아마 결이 많이 다른 논의가 이루어져 ‘제주의 모습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많은 발전이 그 배경에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지역사회에서 가장 핵심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듯 합니다.

그간에는 관련 정책지표들이 관광객, 주민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으나, 관광사업체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로, 전세버스, 렌터카 등은 과잉공급을 전제로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고, 가동률, 수수료 등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토대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회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호남지방통계청과 관광산업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 중에 호텔, 교통 등 사업체에 대한 회전율 혹은 가동률 등을 토대로 지표 관리가 필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통해 관리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방안을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관광사업체 운영에 대한 지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관광공사 이재홍 본부장]

정책기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학수 과장님께서 마무리 발언과 함께 대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주)제주생태관광 윤순희 대표]

제주의 지금 모습은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으로부터 질적 성장인가를 설정하고 지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연과 관광객, 지역민과의 상생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지표가 시대의 흐름과 발을 맞춰갈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질적 성장과 관련해 심도있는 고민과 접근이 선제되어야 하며, 문헌적 고찰보다 사람 중심의 관점에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이 질적 관광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표만으로는 판단한다면, 관광객의 오랜 체류가 과연 질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다움’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 목표 완결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단계별 지표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관광객의 요구는 현지화가 트렌드입니다. 관광객 만족도 조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관계지향적인 관광’, ‘참여적인 관광’에 대한 조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동일 연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소득’ 분야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상품운용 경험상, 관광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외연적으로 다양한데 이러한 것을 단순히 계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에 그 의문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한 인증인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업체, 자원에 대한 인증인지 주체에 대한 고민과 인증에 대한 가치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선행되어야 함에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홍성화 교수]

지표라는 것이 관광으로 둘러싼 이해집단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지역주민과 관광객만이 아닌 양성우 국장님의 말씀처럼 사업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러한 세 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표관리를 통해 소위 말하는 저가, 저질의 패키지, 특정 관광지, 특정 지역의 혼잡, 양적 급증과 관련하여 관련 종사자, 지역민들의 행복수준이 적절한가? 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해야만 질적 성장을 위한 지표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 관광 정책지표는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방문율도 높이고 신규 시장도 개척해야 한다는 부분들입니다. 즉, 이해관계에 따라 관광객의 양적 증가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한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이해하고, 관광객 만족, 지역민, 체재일수 등 다 달성가능한 부분인지를 보았을 때, 서로 상충되는 지표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를 관광객, 지역민, 종사원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에 따라 지표가 상이해질 수 있다 생각하며, 지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관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단순 성과지향적인 지표관리가 될 경우를 위해 견제가 필요하고, 지표관리의 적시성과 적합성을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관광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으로 통계자료에 대한 시의적절성을 고려한 장치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고용 몇 만 명보다는 종사원 만족도 관련 지표가 마련된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케팅 다변화 지표와 관련하여 관광마케팅 자원은 한정적이며, 예산도 한정적인 것임을 고려할 경우, 이 시점에서 시장다변화가 과연 적절한가, 주력시장에 주력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판단문제가 발생하므로 효용성 측면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교통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가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고, 외래 관광객의 신규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교통에 대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한계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 훈 전문위원]

우선, 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관광분야에서는 물리적 수용력이라는 개념과 관련해 작년부터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분야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 하나로서 이 분야에 대한 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물리적 수용력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이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제주지역의 지리적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타 지역에 비해 접근이 쉬울 수 있다 판단됩니다.

질적 성장은 민선 6기에 논의되었으나, ‘지속가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득불균형 문제, 지역주민입장에서의 불편호소 등은 수용력부문에서 상대적인 가치판단기준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가 안고 있는, 그리고 지역사회가 인지하고 있는 4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항공, 쓰레기매립, 하수처리, 교통은 이미 포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미시적으로 접근해 해석한다면 물리적 장소에 국한된 제주전체의 얘기가 아닌 일부지역의 문제로 남겨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이 대체불가할 경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아마도 공항이지 않을까 합니다. 공항이라는 대표

성과 하수처리장의 대체불가 장소의 경우에는 전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소와 관련해 물리적 연한이 정해진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이것들에 대한 지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김희수 연구위원의 말씀처럼 지표는 현실성, 적시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지표들은 현실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매년도 쓰레기 매립 수용능력, 하수처리능력, 공항의 시간당 이착륙 범위로 활주로 활용률 등은 꽤 신속하게 생산되는 자료이므로, 이러한 환경지표를 활용하여 질적 성장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부문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 지역민의 불만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논의가 관광분야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나, 마스터플랜 차원에서는 이미 관광객이 가용하는 수준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하나, 지표관리차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지표만을 관리하기보다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런 물리적 지표를 외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말씀드린 5가지 환경지표가 질적 성장에 연결되어야 좋지 않을까하여 제안 드렸습니다.

[제주관광학회 신왕근 학회장]

패널분들의 의견과 함께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다면, 지표가 담당부서에서 달성하기 쉬운 지표는 활용하고 어려운 지표는 사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일 연구위원님께서 OECD지표와 오키나와 지표를 예로 보여주셨는데, 오키나와 지표는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제주관광의 큰 방향은 관광시장의 경우, 관광경쟁력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가 갖는 불만은 지방정부가 관광객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지역민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부문은 지양하고 질적 지표는 지역민의 윤택한 삶의 수준 제고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소득은 관광에 따른 소득으로 귀결되는가를 고민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로 관광객은 가장 많으나, 종사자들의 평균임금수준은 전국 최하수준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 저하문제에 기인하여 만족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관광지의 경우는 그 수에 따라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수요증가는 소비자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며, 이러한 부문도 정주민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관광객들의 이용하는 시설 중심의 물가지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표관리차원입니다. 신동일 연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보완지표는 단순한 제시인거 같은데, 도민비율의 경우 도민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접근에 대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국가 간 장벽이 무너진 상황 하에서 시대적 착오 발상 아닌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험담을 말씀드리다면, 제주도의 여러 지표를 평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진흥기금 집행실적이 하나의 지표로 평가받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표해석에 따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유산관광지를 과잉, 부족, 보합 수준에서 어느 면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즉, 지표에 대한 해석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 예로 관광 종사자 수는 서비스업 종사자 수로 대체하고 있으며, 실질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에 대한 데이터는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질적 성장 관리를 위해서는 자체 통계시스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현학수 과장]

금일 신동일 연구위원님, 멀리서 발걸음 해주신 김희수 연구위원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많은 말씀 중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전의 관광정책이 양적 성장에 치중되어있었고, 도민을 도외시한 정책들도 알게 모르게 나온 경우도 인정합니다. 정책입안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공감이 있고,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질적 성장 패러다임에 대한 합의와 함께, 기본계획이 수립하였습니다. 다만, 관광객 중심의 지표가 설정되었던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며, 그 고민을 나누고 의견을 듣고자 오늘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이라는 고민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관련 지표가 정밀하고 정교하게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질적 성장을 위한 많은 논의를 종합하여 관광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오히려 단계별 지표를 확산하고 개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김훈 전문위원 의견에 동감하고, 관련 시설물 혹은 그 물리적 수준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또 종사자 만족도와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절대적 종사자 수가 필요한 것이 아닌, 만족수준을 파악하는 것에는 공감하며 종사자들도 도민이 어느 정도 포함되고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지표를 개발하는데 있어, 신동일 연구위원님과 김희수 연구위원님처럼 고민하며, 단계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광으로 인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고려한 관리지표의 개발로 안전과 관련해 도민사회에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이재홍 본부장]

여러 패널분들의 문제제기와 논의를 바탕으로 공사의 입장을 몇 가지 우선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도에서는 질적 성장과 관련하여 '5대 지표 14개 중장기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주관광공사가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재원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지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올해부터 제주도가 ‘제주관광산업 동향조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올해까지는 관광산업생산지수를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분기단위로 관련지수를 산정하여 공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수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적절성이 담보되지 않으나, 내부적으로 관리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모색할 순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제주관광산업에 대한 컨디션과 수급구조 확인을 위해 위성계정을 구축을 예정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활용한 심층적으로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관광산업을 정교하고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사업들을 열거한 이유는 근거자료의 부족 때문입니다. 지표의 설계도 중요하지만 이를 평가하기 위한 근거 역시 중요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 데이터가 축적되면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지표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개발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래의 세계적인 관광과동은 과잉관광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한국사회, 제주사회는 아직 아니지 않은가, 제주도는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성장은 적어 아닙니다. 다만 ‘관리되는 성장’이냐, ‘관리되지 않는 성장’이냐의 문제일 것이며, 결국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적정 성장을 위해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갖고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부문에 대한 지표는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문에 지역사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지표를 개발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지역사회가 합의하고, 이런 합의를 얻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의와 고민을 통해 발전적인 초석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향후 또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일 : 2018년 6월

발행인 : 박홍배

발행처 :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관광공사
JEJU TOURISM ORGANIZATION

THE JEJU DUTY FREE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여유롭고 실속있는 면세쇼핑 중문면세점에서 즐기세요! (중문관광단지 내)

국내선 항공·선박 예약만 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한 면세점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층

문의 064 780 7700

www.jejudfs.com



JEJU DUTY FREE SHOP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수익금은 제주관광발전을 위해 쓰입니다